

202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6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주님과 접촉 안에 머무름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생활함

성경: 롬 8:2, 28-29, 롬 31:33, 히 8:10, 11:1, 5-6, 12:1-2, 고후 4:13.

- I. 새 언약의 중심과 핵심은 내적인 생명의 영의 법(롬 8:2)이다. 이 법은 신성한 생명의 자동적인 원칙과 자연스러운 능력(히 12:1-2)이다.
- A. 그 본질에 있어서 이 법은 신성한 생명을 가리키며, 신성한 생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골 2:9)로 체현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으로 실재화되시며 과정을 거쳐 완결되심으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B. 새 언약의 법은, 그 생명에 따르면 삼일 하나님이고, 그 기능에 따르면 전능하고 신성한 역량이다. 신성한 역량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빌 2:13, 히 13:20-21.
 - C. 생명의 영의 법의 신성한 역량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살 수 있으며,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게 하여, 그분의 증가와 확대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한다 — 엠 1:22-23, 3:19-21.
 - D. 더 나아가, 내적인 생명의 영의 법의 역량은 우리를 온갖 기능들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한다 — 고전 12:27, 롬 12:4-8, 엠 4:11, 15-16.
- II. 우리가 주님과 접촉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과의 접촉을 유지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한다 — 히 11:1, 5-6, 고후 4:13, 마 8:3, 15, 9:20-21, 29, 14:36, 17:7, 20:34, 요 4:23-24, 빌 2:12-13, 롬 8:2, 4, 6, 13-16, 23, 살전 5:16-18
- A.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사랑 자체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운행하실수록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를 더 매혹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하신다 — 롬 5:5, 고전 2:9, 16:22, 요일 4:8, 16, 19, 엠 3:16-21.
 - B.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접촉하고 흡수했다(시 27:1, 4). 다윗은 하나님을 접촉하여 그분을 흡수할 때 빛비춤을 받았고 내적인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위해 그분을 체험하는 큰 열쇠요 큰 비결이다(사 60:7, 9, 13, 19, 21, 고후 3:18, 엠 5:26-27, 계 19:7).
 - 1. “내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는 찬송이 있다(영한 동번 찬송 1048 장).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며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골 2:6-7 상).
 - 2.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는 것이다. 주님께 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내적 상태를 내려 놓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는 약하고 혼돈되고 슬퍼 어떤 말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
 - 3.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관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며 그분을 흡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들을 누리고, 그분의 달콤함을 맛보며, 빛과 능력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평화롭고 밝고 힘 있고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분과 연결되는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다 — 벰전 4:10-11, 고후 2:17, 13:3.

C. 기도의 의미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편 27 편 4 절에서 다윗은 그의 갈망이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고 했다. 여쭙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한 말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표현이다.

1.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그분께 표현하는 것이다.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시 27:8).
2.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접촉하고 흡수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내적인 말씀에 따라 기도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흡수하여 그분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 요 15:7.
3.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방면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을 위한 그분의 부담을 우리에게 기쁨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도를 계시하신다.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방면은 일을 위한 주님의 뜻과 부담에 관해 그분께 여쭙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협력하여 기도의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 사 62:6-7, 45:11, 겔 22:30, 단 9:2-4, 삼상 12:23, 고전 3:9, 고후 6:1 상.
4. 여쭙는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윗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주 여호와께 여쭙었다(삼상 22:10, 23:2, 4, 30:8, 삼하 2:1, 5:19, 23). 하나님께서 신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아”(삼하 7:18) 있었고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삼하 7:25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좋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 드릴 마음을 품었습니다.”(삼하 7:27)라고 그분께 말씀 드렸다.

D.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비결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다 — 시 27:5, 31:20, 32:7, 119:114, 91:1-2, 빌 4:13, 23, 롬 1:9, 고후 2:13.

E.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의지하는 영을 가짐으로 그분을 부르며 그분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그분과 대화함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고 설치되시고 자동적이며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 롬 10:12-13, 창 13:18, 살전 5:17, 엡 6:17-18, 빌 4:5-7, 12-13.

F.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주의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고 설치되시고 자동적이며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기관이고,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허락하는 열쇠요 스위치요 전략적인 지점이다 — 시 78:8, 말 2:15-16, 잠 4:23, 겔 36:26, 엡 3:17, 마 5:3, 8.

III. 하나님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로 구성되어 그분의 존재와 하나의 조성이체가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신다 — 롬 8:2, 10, 6, 11, 39.

A.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가장 높은 이 생명의 가장 높은 법(단수 — 롬 31:33)을 우리의 영 안으로 넣으신다. 그리하여 그 법은 우리의 속부분들,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되어 여러 법(복수 — 히 8:10)이 된다.

1. 주님께서 확산되고 나누어주고 새기는 일을 하시는 동안 그분은 우리에게서 아담의 낡은 요소를 감소시키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요소를 우리 안으로 더하시어 우리를 위해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성취하신다 — 고후 3:18.

2.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일하고 확산됨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신다.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의 일에 의해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 롬 8:2, 28-29.
- B.** 만아들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고 높여지신 존재로 완전히 침투될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영 안으로 뿌리신 생명이 자극을 받아 자라고 발전하고 우리의 모든 속부분들을 적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신다 — 히 7:26, 롬 8:34, 막 4:3, 14, 20, 26-29.
1. 많은 때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중보기도들을 인용한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중보기도들을 인용하거나 반영한 것이다 — 롬 8:26-27.
 2. 한 면에서 주님은 생명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서 자라신다. 또 다른 면에서 그분은 그분이 우리 안에 뿌리신 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 막 4:10, 34, 히 7:25.
 3.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동안 생명의 영은 우리를 형태 짓고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여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신다.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가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형태를 규제한다 — 롬 8:2, 28-29.
 4. 내주하는 원형이신 하나님의 만아들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우리를 ‘아들화’하신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만아들과 똑같은 이들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5. 이 원형을 대량 재생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살아 있는 원형인 만아들을 우리의 온존재 안으로 일해 넣는 것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원형께 협력하고 열어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 안으로 확산되실 것이다.
 6. 만아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의 대량 재생산을 위한 원형 곧 표준 모형이시며, 많은 아들들은 표준 모형인 하나님의 만아들의 단체적인 재생산과 표현을 위한 새 사람인 그분의 몸을 조성하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다 — 롬 8:29.
 7. 생명의 영의 법은 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이 자랄 때 생명의 영의 법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를 형태 짓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생명의 영의 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실 것이다.
- IV.**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영의 내주하는 자동적인 법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의 성취를 위해 우리를 신격 아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 롬 8:2, 28-29, 12:1-2, 11:36, 16:27, 빌 1:19, 비교 갈 1:15-16, 2:20, 4:19, 26-28, 31.